

일본어 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4년 전에 일본에 왔다.

일본 생활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다.

처음 일본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여자 친구끼리 팔짱을
낄 수 없다는 것이었다.

한국에서는 친한 여자 친구끼리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.

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낯설고 놀랄 만한 모습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팔짱
을 끼는 것을 통해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기
도 한다.